

### 背水陣(배수진)

背(배)는 척추라는 뜻으로 어떤 물체의 뒷면을 가리킨다.

陣(진)은 兩軍이 交戰할 때의 행렬 또는 陣勢(진세)를 뜻 한다.

背水陣이란 물을 등뒤로 하고 陣營을 구축한다는 뜻으로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서 뒤로 물러나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므로 어차피 죽을 바에는 결사적으로 싸우라는 뜻이다.

韓(한)나라 劉邦(유방)의 名將 韓信(한신)은 劉邦의 命에 따라 趙(조)나라를 공격하게 되었으나 태반이 보충병인 오합지졸이었다.

이에 비해 趙나라 王은 정예군 20萬名으로 陣地를 구축해 놓고 韓信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名將 趙隨一(조수일)이 있었고 李在車(이재거)라는 智將도 있었다. 韓信은 병사들에게 깊은 江을 등뒤로 하여 陣營을 구축 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본 趙나라 王 歇(혈)은 江을 등지고 陣을 친 韓信을 비웃었다. 兵法(병법)도 모르는 장수라고—.

몇차례의 접전 끝에 韓信은 江가로 달아나는 척 했다. 士氣가 충천한 趙나라 군대는 바짝 추격해 들어갔다.

江물을 등진 韓信의 군대는 뒤로 물러서자니 江물에 빠져 죽을 것이 뻔하므로 결사적으로 싸워 결국 크게 勝利했다.

싸움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兵法에 보면 山을 등지고 물을 앞쪽에 두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반대로 진을 치고서도 승리 하였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였다.

韓信은 웃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死地(사지)에 밀어 넣으면 도리어 살길이 얻어지는 수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응용한 것이 背水陣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背水陣이라는 말은 성공하지 못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 人之常情(인지상정)

사람의 평상시의 감정을 일컬어 人之常情이라고 한다. 좋은 옷을 보면 입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고, 돈을 보면 가지고 싶다. 強者보다는 弱者를 응원하고 싶고,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 이런 것이 모두 人之常情이다. 그러면 人之常情이라는 文句를 쓰게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戰國時代 변설가 蘇秦(소진)이 벼슬에 오르지 못해 밥만 축내고 있게 되자 그의 형수는 구박을 일삼았다. 그러나 六國의 재상이 되어 고향에 돌아오자 형수는 맨발로 뛰어 나와 온갖 美詞麗句를 늘어 놓으며 아양을 떨었다. 이 꼴을 보다 못한 수행원이 형수를 야단치려 하자 蘇秦이 말리며 말했다.

「놔두어라. 그것이 人之常情이니라.」

그런데 世上事를 보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人情은 富貴와 反比例하는 모양이다.

우리 주변을 돌아 보더라도 달동네에서는 이웃과 딱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는데 궁전같은 집에 사는 富村 사람들은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미 오랜 옛날 南北朝時代에 梁(양)나라의 장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貴遠賤近 人之常情(귀하면 멀어지고 천하면 가까워지는 것이 人之常情이다)」

**유모어 코너**

**恐妻家の 報告(공처가의 보고)**

수사과장에게 긴급 電話가 걸려왔다.

「과장님 저 S순경인데요. 공원을 순찰하다가 어두운 곳에서 의설행위를 하는 풍기물란사범 한 사람을 적발 했습니다.」

「그래 -. 그러면 단단히 타일러 보냈겠지.」

「아니요, 저는 그 사나이를 때렸습니다.」

「뭐라고 -. 왜 폭행을 했나」

「그놈팽이가 꺾안고 있던 女子가 바로 제 마누라였기 때문입니다.」

「허 그래서 婦人은 어떻게 했나」

「지금 저는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보고 드리는 것인데요. 밖에서 마누라가 잔뜩 노려보고 제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서 있는 중입니다. 나가기만 하면 매맞아 죽을지 모르니 긴급 구원을 요청합니다.」

**韓國의 地名由來**

**서울 宗廟(종묘)**

서울 鍾路區 薰井洞(훈정동)에 朝鮮朝 歷代君王의 神位(신위)를 모신 宗廟가 있다. 宗廟는 大廟 또는 太廟라고도 하며 처음 太祖 4年(1395)에 創建하여 나라에서 가장 중요시 하던 祠堂(사당)이다.

宗廟는 本殿(본전)과 別殿(별전)으로 나뉘어져 있고 本殿에는 帝王 중에서도 功이 큰 分을 모셨으며 別殿에는 本殿에 모시지 않은 王과 追崇(추숭)된 王을 모셨는데 1年 4個月에 맞추어 4번 祭祀(제사)를 모신다.

宗廟는 지은지 200年만에 壬辰倭亂(임진왜란)이 일어나 서울이 함락되자 日本軍總司領官 宇喜多(우끼다)가 이곳에 陣을 쳤는데 밤이면 兵卒들이 폭사하는 괴변이 일어나므로 지금의 朝鮮호텔 자리에 있던 南別宮으로 옮겼으며 뒤에 倭敵이 漢陽을 철수할 때 불질러 버린것을 光海君때 다시 重建한 것이다.

이 宗廟의 門에는 蒼葉門(창엽문)이 라고 씌여 있는데 蒼字는 20(廿)과 8(八)과 임금(君)의 合字이고 葉字 또한 20(廿)과 8(八)과 世(세)로 되어 있어 宗廟에 모신 28位의 君王과 일치한다.

집을 지을때 써 붙인 蒼葉門의 破字가 28君王의 숫자와 일치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